

교만이 부른 최후

역대하 25:17-24, 찬송가 274장

1 기도 가족 중 한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아래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성경읽기

새번역 성경

17 유다 왕 아마샤가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할 모의를 하고,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18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서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습니다.

19 당신은 에돔을 쳐부수었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겨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우쭐대지만, 차라리 당신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별 탈이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20 그가 이렇게 말하여도 아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 신들의 뜻을 물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여호아스의 손에 넘겨 주시려고, 아마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21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아마샤 왕을 맞아 유다의 벧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22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23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벧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 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사백 자 길이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24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벧에돔이 지키고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들을 약탈하고, 왕궁의 보물 창고를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개역개정 성경

17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18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19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20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21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벧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22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23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벧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사백 규빗을 헐고

24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벧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3 본문 설명

교만해진 아마샤는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용해서 우상(에돔의 신)을 섬긴 아마샤와 유다 백성을 벌하실 뜻을 세우십니다. 전쟁의 결과, 유다는 패하였고 교만하게 큰소리치던 아마샤는 붙잡힙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고, 성전의 성물과 왕궁의 보물, 그리고 포로까지 끌고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아마샤의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바꾸어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4 삶의 나눔 5 함께하는 기도

6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요약

One-Point 목상

1 목상구절 절

2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3 오늘의 삶

4 적용

5 기도